

외부공간을 활용한 공공도서관의 특화 전략에 관한 연구

권용호*, 전성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1. 서론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발명 이후 인쇄술에 의해 책(대량 복제물)이 생산되고 상업적인 출판유통 시스템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널리 배포되면서 책은 인류의 지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가 되었다. 도서관은 이러한 책(복제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식 공유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되었다¹⁾. 도서관은 자료 자체의 가치보다는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지향하므로²⁾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료 열람과 대출이었다. 지식 매체의 다양화, 문화적 역할에 대한 요구 등으로 오늘날 도서관은 서적 보관, 열람, 대출을 위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평생학습, 사회적 교류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였다. 2022년 7월 제87차 세계도서관정보(WLIC)대회에서 발표된 '2022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에서 "공공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정보의 중심지이자, 지식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지식 생산, 정보 및 문화의 공유 및 교환,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공공도서관을 재정의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2022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총 1,236개관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42.9%가 증가하였고, 공공도서관의 환경평가 척도인 1관당 봉사인구 수(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기준으로 1개 도서관이 봉사하는 인구 수)는 41,617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9.6%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정부는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을 발표 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2년간 전국에 총 108개관이 조성되어 일상에서 공공도서관이 보다 가까워지고,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의 문화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전문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는 2017년부터 지역 환경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특화도서관 육성사업'을 통해 매년 10개관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특화도서관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마니아, 연구자 등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방문 명사로 알려지면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삼청공원의 숲속도서관이 뉴욕타임스에 "힐링의 장소로 특별히 설계된 곳(specifically designed as an antidote)"으로 소개되면서 서울시는 공원에 카페, 도서관, 프로그램 등 힐링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숲속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공원 내 도서관 조성이 촉진되었고 시민들은 공원의 자연 속에서 독서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경우, 최근 방문자가 체험하는 공간이나 환경, 또는 가상체험 자체가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간과 환경 체험이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³⁾. 도서관의 경우 이용자의 도서 열람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도서관의 열람 공간과 환경은 주로 실내의 열람 책상에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도서관 외부공간을 연계/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열람과 문화 공간을 실내에서 외부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독서 경험과 환경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조성된 공공도서관의 외부공간에 초점을 두고 외부공간 및 환경의 연계 및 활용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특화 전략을 도출하여 공공도서관의 독서 경험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도서관은 크게 '지식'을 담은 장서 등 자료, 그리고 열람과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서관 '공간'으로 구성되며, '지식'의 전문화, '공간'의 차별화를 통해 특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도서관 공간과 단절되거나 활용도가 낮았던 도서관의 외부공간을 공공도서관의 공간 특화 전략 요소로 주목하였다. 과거 실내에 제한되었던 열람 및 문화 공간이 외부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공도서관의 외부공간과 연계/활용 방식(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특화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문헌, 학술 논문, 통계, 신문기사 등 자료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발전과정, 공공도서관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사업 등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둘째, 최근 5년 내 조성되고 공원, 산, 호수, 광장 등에 입지하거나 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이를 연계 혹은 활용하는 공공도서관을 수집·조사하고, 이 중 개관 후 이용자 수가 증가하거나 건축상 수상 이력을 지닌 9개관의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최종 선정하였다. 셋

1) 이시카와 테쓰야 외, 조혜린 역(202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p. 17.

2) 상계서, p.28.

3) 상계서, p.28.

째, 도서관의 외부공간 연계/활용 방식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도서관의 기본 정보, 외부공간, 외부공간과의 연계/활용 방식,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 수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현장 조사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운영, 설립/관리/운영 주체, 한계점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공공도서관 외부공간 활용 방식의 특성 및 특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한 9개관의 공공도서관은 공원, 산, 호수, 광장에 입지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과 공간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계하거나 외부공간에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외부공간 및 특화 공간, 외부공간과의 연계/활용 방식에 따라 시각연계형, 공간연계형, 이벤트형으로 유형화하고 사례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시각연계형은 주로 투명한 전면창을 이용하여 내부 열람 공간에서 외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면창은 외부 경관을 내부 열람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열람 분위기를 환기하는 장치로서 역할한다. 성동숲속도서관(응봉산근린공원), 의정부미술도서관(하늘농산공원), 의정부음악도서관(장암발곡근린공원)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공간연계형은 야외테크, 수공간, 중정 등 도서관의 외부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되거나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광교푸른숲도서관 책뜰(광교호수공원), 손기정문학도서관(손기정체육공원), 방배숲환경도서관(서리풀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공간연계형은 도서관의 외부공간과 환경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고, 열람 및 문화 공간을 외부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공간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다.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여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 고베 어린이 책의 숲(도서관)은 고베시 히가시 공원 내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수칙 중 하나는 도서 대출은 불가하지만, 도서관(야외 테크)이나 공원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의 열람 공간을 외부로 확장하여 다양한 독서공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도서관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이벤트형은 도서관의 외부 공간에서 야외서기를 운영하거나 빈백, 캠페인자 등을 비치한 북피크닉, 작가, 가수 등 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토크쇼,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 외에도 문화적 요소를 함께 경험하면서 이용자의 공간 경험의 폭을 확장한다. 서울도서관 야외도서관(서울시청 잔디광장), 광화문광장 책마당(광화문광장), 다산성곽도서관(남산), 양천공원책집터(양천공원)이 이벤트 유형에 해당한다.

이벤트형, 공간연계형, 시각연계형 순으로 도서관 외부공간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는 도서관의 공간 경험을 다양하게 하며, 공간 경험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외부공간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외부공간의 운영 및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 외부공간 이용을 위해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이용자 안전 문제로 인해 외부공간의 활용에 제약이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여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 고베 어린이 책의 숲(도서관)은 고베시 히가시 공원 내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수칙 중 하나는 도서 대출은 불가하지만, 도서관(야외 테크)이나 공원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의 열람 공간을 외부로 확장하여 다양한 독서공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도서관의 운영 여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도서관에서의 공간 경험을 다양화하고 활동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제언

지식 매체의 다양화, 문화적 요구 등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변모하였고, 오늘날 전문화, 차별화된 도서관에 대한 요구로 공공도서관은 다시 한번 특별하게 변모 중이다. 도서관을 구성하는 ‘지식’과 ‘공간’은 도서관 특화를 위한 주요 전략 요소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도서관 공간과 단절되거나 활용도가 낮았던 공공도서관의 외부공간을 공간 특화 전략 요소로서 주목하고, 공공도서관의 외부공간 및 환경의 연계 및 활용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특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외부공간을 활용한 공공도서관의 특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산, 호수 등 자연환경 혹은 특색있는 환경 내 혹은 인접한 곳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한다. 둘째, 공공도서관 계획 단계에서 주변 환경과 경관 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 및 활용 방향과 방식을 고려하여 계획·조성한다. 셋째, 도서관의 외부공간의 활용을 위한 도서관의 운영 규정 설정, 도서관과 외부공간의 운영 및 관리 주체의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조성된 외부공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외부공간에서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독서 공간”은 신체를 가진 독자(讀者)와 서적이라는 사물이 접하여 교신하고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공간(interface space)이며, ‘쓰여진 것’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보의 집적을 읽는 경험이다⁴⁾. 도서관 환경을 ‘1관당 봉사자수(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기준으로 1개 도서관이 봉사하는 인구 수)’라는 양적 지표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간 경험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서 공간의 다양화와 이를 위한 도서관의 공간과 환경의 활용은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독서공간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은 공공도서관의 공간 특화의 핵심이며, 공간 경험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가도서관통계(2021)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20. 9. 17.) 정부,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건 확정.
3. 김유란(2020)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국토연구원.
- 4) 이시카와 테쓰야 등, 조혜린 역(202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한올아카데미, p. 276, 柳田国男, 「読書空間の近代(독서공간의 근대)」 재인용.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 6. 2.) 다양화, 전문화 시대에 도서관이 특별해진다.
5. 서울시 푸른도시국(2019. 7.) 도심 속 힐링복합공간 공원 내 숲속도서관 조성 추진계획.
6. 이시카와 테쓰야 등, 조혜린 역(202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라키비움과 지식기반 만들기. 한울아카데미.